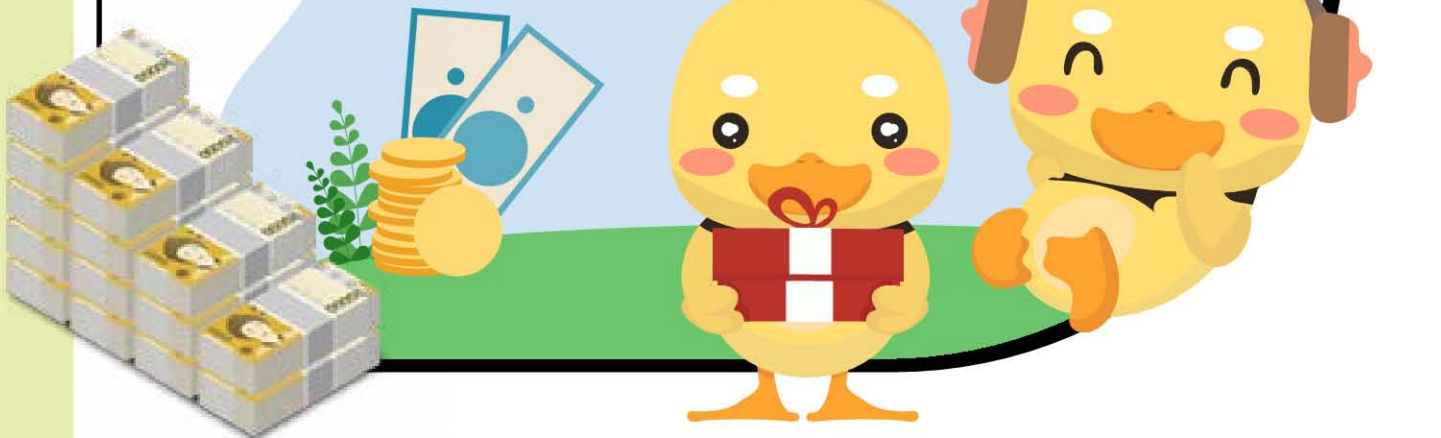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메뉴얼 II

차단방역이란 가축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차단방역은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인 경우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 방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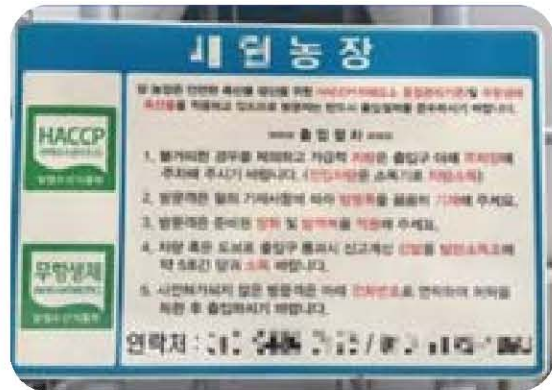
차단 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반석가금연구소의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 방역 메뉴얼을 연재해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차단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접근방지 표지판 부착



▶ 접근방지표지판



▶ 농장안내문

우리나라에서 평시 농장 입구에 접근방지를 위한 경고용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축산법 시행령 등 법에서 정한 필수사항이며, 고병원성 시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가 정한 규정된 형태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평시에도 농장의 차단 방역을 위해 모든 농장 입구(정문 및 후문 등 모든 농장의 출입문)에는 농장안내문과 방역 경고문 등의 부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완충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접근방지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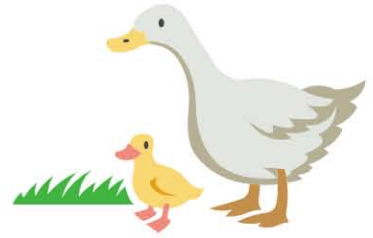
특히 사육유형별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접근방지 표지판 부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차단 방역 표지판들을 농장의 모든 출입문에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잘 보이고, 읽기 쉬워야 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은 차단 방역이 시행 중이고 접근이 통제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정문의 접근방지 표지판에는 반드시 농장관리자의 연락처(보조연락처 포함)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후문의 표지판에는 정문의 위치 및 가는 방법에 대해 기록한다.



세척 및 소독



▶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 농장 출입구 대인 소독시설



세척 및 오염물제거는 차량, 장비 및 방문자로부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먼지나 유기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척 및 소독의 목적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장비, 또는 방문자에 묻어있는 병원체를 포함한 유기물이나 기타 부스러기 등이 농장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소독은 차량, 장비 및 방문자에 대하여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 처치를 하는 것으로 세척이나 오염 제거와는 또 다른 단계의 조치이다.

유기물에 의해 보호된 병원체들은 소독제에 의한 소독효과가 떨어지므로 세척 및 오염물 제거 후에 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독액은 살포된 후 적어도 30분 정도의 적용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면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차량의 외부뿐 아니라 내부(특히 발판)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출입구에서의 세척 및 소독은 차단방역의 핵심개념이며, 그 대상이 되는 출입차량과 방문자는 차단방역의 핵심 대상이 된다. 농장의 차단방역 원칙은 가급적 외부차량, 장비 및 사람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세척 및 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

완충지역인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나 방문자는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하여야 한다. 평상시에는 세척과 오염물제거만을 해도 되지만, 인근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 농장전용 작업복 착용



▶ 물품반입창고



▶ 소독용품 보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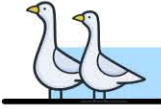
차량 및 인원 모두 농장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에도 소독을 실시하는 '양방향소독'을 실천한다. 차량의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제 샤워장치기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 살포식을 권장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수동 살포식 소독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소독시설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매우 느리게 전진시켜 소독액이 차량의 외부 전체에 적도록 한다. 외부 소독이 마무리된 후 차량의 내부도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차량 소독기는 항상 작동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갑작스런 고장 등으로 인한 소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방문자의 농장 출입구에 대인소독시설(자동 또는 수동)을 설치하여 이 시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정한다.

차량의 세척·소독과 더불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 또한 하차 후 농장 입구에 위생전실이나 기타 대인소독기 샤워실 등의 시설을 통해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에다시 승차하여 농장에 진입하도록 하며, 농장 출입 전용 옷, 신발, 모자, 장갑 등을착용하도록 한다. 차량을 소독한다고 하더라도 차량탑승자가 병원체를 농장 안으로 전파시킬 수 있다.

세척 및 오염제거 장소는 효과적이고, 언제든지 완전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세척장은 적당히 경사가 져서 고이지 않고 배수로로 흘러나가도록 설계한다. 주변에는 배수와 여과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식물을 심을 수도 있다.

사육유형별 적용 방안



축종별

종오리

- 종오리 농장의 경우 육용오리농장에 비해 사육기간이 길어 분뇨처리차량 및 알수송 차량 등 출입차량이 다양하고 출입 빈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내부소독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
- 수의사, 예방백신 접종팀 및 인공수정사는 농장 간 이동이 잦고 오리와 직접 접촉하므로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아 농장 출입 전·후에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별 전용신발의복 및 장비를 준비하여 착용한 뒤 작업해야 한다.
- 전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방백신 접종팀 등 출입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용오리

- 육용오리의 경우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체중측정을 할 때, 농장에 진입하는 사람과 차량 및 체중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 및 체중측정을 허용해야 한다.



사육형태별

- 케이지 사육이나 평사사육 모두 동일한 수준의 세척 및 소독이 요구된다.



사육환경별

겨울

- 겨울철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평상시보다 더 철저한 차단방역 및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가장 먼저 낮은 온도로 인해 소독장치가 얼지 않도록 열선이나 기타 보온장치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출입구에서의 반복 소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동식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한다. 추가적으로 소독약에 부동액을 첨가하는 것은 소독제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 반석가금연구소